

한(조선)반도 전쟁 70주년 세계교회 공동평화선언문

2020년 6월 25일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미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호주 기독교교회 협의회
영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태국 그리스도 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필리핀 기독교교회 협의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에디오피아 루터교회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모스크바 총 대주교청-러시아 정교회

70년전 한(조선)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약 삼백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고, 주요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이산가족을 양산했고, 동일한 언어,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혐오를 초래했다.

한(조선)반도 갈등의 근본적인 토대는 36년의 일본제국 지배에서 해방 직후 세계 2차대전 이후 미합중국과 구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나누어서 신탁통치를 당하며 분단은 냉전시대에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이어지며 한(조선)반도에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시켰다.

그 후 1953년까지 3년간의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을 분리하는 비무장 지대가 만들어지면서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사실상 한(조선)반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한(조선)반도 전쟁 참전국의 교회로서 다음과 같은 요구에 동참하고자 한다:

- 우리는 한(조선)반도의 즉각적인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 영구적인 평화체제의 실현을 향한 출발점으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조속히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때이다. 오랜 한(조선)반도의 분단과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새로운 도전들 또한 제기되었고, 계속하여 분단과 갈등이 지속되어 진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전쟁 종식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향한 현실적 대화와 협상의 조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오랫동안 지체해 온 역사적 인식과 더불어 평화조약이 문서화되어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적대감을 완화하고 정체된 관문점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혹은 즉각 취소하고,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와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대화를 즉각 재개하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외교관계를 속히 정상화 하기를 요구한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 6월 싱가포르 선언에서 결의한 한(조선)반도 평화를 향한 희망이 이루어 지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한(조선)반도를 핵 위협에서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현실화 되기를 함께 기도한다. 또한 온 세상이 핵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이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한(조선)반도 전쟁의 역사는 통일이 그 어떤 무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통일은 오직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단된 한(조선)반도 백성들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된 정체성과 미래를 공유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롯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영향력과 영감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단된 한(조선)반도 백성들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된 정체성과 미래를 공유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롯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영향력과 영감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세계 총 대주교청

세계개혁교회협의회

세계감리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

대한성공회 (성공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감)

연합감리교회 (미국)

미국 장로교회

미국 연합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제자교회 (미국, 캐나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미국)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캐나다)